

# 고대 러시아 부흥기 문학에서의 전통과 모방

## - 키예프 러시아 문학에 대한 모방을 중심으로\*

서 선 정\*\*

### 1. 고대 러시아 부흥기의 역사적 상황과 전통 지향 발현

인류의 역사상 완벽히 고립된 문화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할 때, 문화의 발전과 변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문화 간의 영향 관계일 것이다. 이 때, 영향(влияние)과 차용(заимствование)이라는 개념은 영향을 주는 문화와 영향을 받고 타문화를 차용하는 문화를 상징하므로, 문화 발전을 선진한 문화와 후진한 문화 간의 소통 상황으로 이해할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다소 예민한 쟁점을 제공한다.

특히 정교 세례와 더불어 비잔틴으로부터 여러 문화의 모델을 수용함으로써 중세를 맞이한 러시아의 문화발전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타문화의 영향이라는 문제는 자문화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필연적 선행과제였다. 일례로 리하초프(Д. С. Лихачев)는 비잔틴의 문학 규범을 받아들임으로써 본격적인 기록 문학 시대를 연 초기 러시아 문학의 상황을 기존의 문화 발전 모델에서 사용된 영향(влияние)이 아닌 이식(трансплантация, перенос)으로 이해한다.<sup>1)</sup> 그의 이식문화론에 따르면, 초기 러시아에는 비잔틴에서 전수되어진 바와 같은 문학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초기 러시아의 문학적 상황이란 문학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 비잔틴으로부터 러시아 땅에 이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다. 즉,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영향관계는 엄밀히 말해 서로 대체 가능한 문화양식들 간에서 성립 가능한 것으로서, 상이한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AM0057)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연구원

1) Д. С. Лихачев(1973)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XVII веков,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 1, Л., 1987, сс. 42-45.

발전 단계에 놓인 문화들 간의 관계에서 한 문화에 없는 양식을 다른 문화로부터 수용하는 현상은 문화의 이식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 때, 이식(трансплантация)이라는 개념이 갖는, 선진문화와 후진문화 간의 종속적 관계 구도에 대한 합의 가능성은 문화의 상호 관계의 여러 동인들 중 문화 주체의 내적, 능동적 요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극복된다. 즉, 러시아가 비잔틴으로부터 스스로에게 없는 문학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문화적 종속에 의한 강제 이식이 아니라, 그러한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러시아 문화의 자발적인 내적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문화 내적 요구에 의해 수용된 타문화의 씨앗들은 러시아라는 토양과 환경의 자양분을 통해 러시아적인 문화로 자라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문화의 태동과 발전에 있어서 전달 주체 혹은 영향을 주는 문화 주체의 역할이 아닌 수용 주체, 혹은 이식 토양의 역할에 더욱 더 적극성을 부여한다. 세계라는 거대한 다문화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문화 교류를 상정해볼 때, 다소 지나치게 문화 수용주체의 능동성이 강조된 이러한 이해는 이미 고대 러시아 시대부터 지속되어온 러시아인들의 자기 문화 정체성 찾기라는 오랜 과제와 연관된, 국가와 민족의 내적 역량과 욕구가 역사 발전을 가져온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로트만(Ю. М. Лотман)은 이러한 문화들 간의 상호 관계를 그의 중심이론인 ‘문화 텍스트론’ 혹은 ‘문화적 대화’와 ‘문화적 번역’을 통해 이해한다. 로트만의 문화 이론은 첫째,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영향 관계는 전달되어지는 문화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설정되는 대화적 상황으로서, 두 문화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따라서 둘째, 발신자에 의해 내놓여진 문화 텍스트는 수신자의 언어로의 내적 번역 과정을 거쳐 소통되는데, 셋째, 그 과정에서 발신 텍스트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이 수신자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에 의해 자기 이해에 합당한 부분만을 선택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sup>2)</sup> 이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해야할 지점은 문화의 정보들이 모두 수신 문화에 의해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어진다는 것과 각각의 문화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지닌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문화의 교류가 다른 ‘언어’를 가진 문화 간에 이루어진다는 인식은 문화적 영향에서 발신 측의 일방적인 권력이나 수신 측의 종속 관

2) Ю. М. Лотман(1992a) "Проблема византийского влияния на русскую культуру в типологическом освещении,"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 1, Таллинн, сс. 121-122.

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수신 측의 선택적 수용은 문화 교류에 있어 수신 문화가 지니는 능동성을 시사한다. 초기에 발신된 문화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던 문화 수신자는 점차적으로 발신 문화 텍스트 속의 낯선 언어와 기호체계들을 자기화하여 구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체계와 유사한 새로운 텍스트를 재창조하게 된다.

문화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리하쾨프와 로트만의 이론은 모두 수용측 문화의 내적 요구와 적극성을 문화 교류의 가장 중심적인 동인으로 인식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에 비해 늦은 발전 과정을 거쳤던 러시아의 문화 발전사를 주변의 선진 문화들의 영향과 그에 대한 모방으로 평가절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독특한 역사적 행보를 걸어온 러시아 문화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한편, 앞선 논의들에서 주목한, 특정 문화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외적인 요소들 외에도 많은 경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문화의 전통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통한 변화와 발전일 것이다. 로트만은 특정 집단의 문화사를 관찰할 때,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형태로서, 해당 문화의 통시적 회고적인 자기 전통 지향적 흐름을 자아지향소통(автокоммуникация)으로 규정한다.<sup>3)</sup> 동시대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상기된 영향관계들과 달리 통시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과거에 대한 기억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과거의 문화적 산물을 새로운 시대 언어로 ‘번역’해냄으로써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문화 산물을 창출해내는 과정이 된다. 특히, 정교로의 세례 이후 서구 유럽의 문화에 뒤늦게 동참한 탓에 유럽 문화에 준하는 자기 문화와 전통 확립을 열망했던 러시아로서는 선행한 자기 문화에 대한 회고는 자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당면 과제이기도 했다.<sup>4)</sup> 실제, 고대 러시아 문화의 곳곳에서 오래되고 선행된 것을 가장 완벽한 것이자 훌륭한 것, 영광된 것으로 평가한 예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3) Ю. М. Лотман(1992b) "О двух моделях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системе культуры,"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 1, Таллинн, сс. 76-89.

4) 이 때, 고대 러시아 문화가 갖는 선행한 자문화에 대한 회고 지향성은 중세 문화로서 고대 러시아 문화가 지녔던 강박적인 원칙성과는 구분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러시아 문학과 미술은 예술적 원전과 원형을 반복하고 보존하는 것, 원전과 원형을 재현하는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이러한 원형성에 대한 지향과 자기 전통에 대한 회고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할 개념이다.

고대 러시아 문화사에서 과거 전통 문화에 대한 의도적 회고와 요구가 문화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 첫 시기는 정신적으로 몽고 침탈을 극복하기 시작하던 14세기 말부터 모스크바 공국의 성립기인 16세기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적 '부흥기'라 할 수 있다. 1380년 쿨리코보 전투(Куликовская битва)의 승리 이후, 비록 몽고의 외적 지배는 지속되고 있었으나 이미 몽고 불패의 신화를 깨뜨린 러시아인들은 민족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동시에 침탈로 피폐해진 러시아 문화와 정신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강렬한 내적 요구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는 1480년 몽고의 지배가 종결된 이후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새로운 국체國體의 성립과 더불어 본격화되었다. 당대 러시아인들의 내적 요구가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느냐는 교회 문학 코드로 점철된 당대의 기록문학에서보다도 브일리나와 같은 구전문학들 속에서 더욱 현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키예프 싸이클의 브일리나에서 드러나듯, 오랜 세월 민중들의 의식 속에서 정치/종교적 이상향으로 각인되었던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화적 전통은 그들에게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줄 자랑스러운 과거로 등장하게 되었고,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학적 전통은 문화적 기억으로서 시간적 거리를 뛰어넘어 전달되고 재생되었다.

리하초프는 14세기 말 이후의 이러한 시대 분위기와 관련하여 문학에서 일어난, 과거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학 전통을 복구하고 보존하고자하는 경향을 서구유럽의 르네상스에 유비시켰다. 서구의 문예부흥이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대한 회고를 통해 역사적으로 그 이전시기 -중세- 시기를 뛰어넘어 찬란한 문화로의 부활을 꾀했다면, 이 시기 러시아는 몽고의 침탈로 인해 피폐해진 러시아의 전통을 키예프 시대 문화를 복구시킴으로써 부활시키고자 했다. 즉, 모두 이전 시대 문화로의 복귀를 통해 문화의 부흥을 꾀했다는 점에서 두 시기는 서로 흡사하다. 그러나, 리하초프가 지적하고 있듯, 비록 이 시기의 러시아 문화가 서구 유럽의 르네상스적인 개별 경향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전반을 인문주의적인 세계의 도래, 기독교적 중세 문화의 세속화라는 특질로 정의되는 서구유럽의 르네상스에 유비할 수는 없다.<sup>5)</sup>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러시아는 기독교적 문화의 세속화라는 르네상스적 과제가 아닌 찬란한 기독교 문화에로의 회귀라는 과제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인문주의에로의 경도라는 경향이 역사상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구

5) Д. С. Лихачев(1973), сс. 102-104.

정하는 가장 주요한 자질이라면, 이 시기 러시아의 문화는 이후 17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교회의 세속화와 개성의 출현이라는 경향이 시발된 먼 시원이었다는 점에서 전기르네상스(предвозрождение)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흔히 이 시기 러시아에 일어난 문화적 변혁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언급되는 ‘제2차 남슬라브영향(второе южнославянское влияние)’은 직접적으로는 외부로부터 불어온 영향이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당대 러시아 문화에서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하게 된 것에는 러시아인들의 내적인 요구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4세기 말-15세기 러시아 문화계는 남슬라브 문화와 당대 러시아 문화 간의 공식적 소통과 당대 러시아와 키예프 러시아 문화 간의 통시적 자아지향소통이 교차하는 역동적 문화 공간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화적 전통을 복구하여 새로운 문화를 생성해야만 하는 과제에 당면한 14세기 말-15세기 러시아인들에게 전통으로 설정되었던 두 문화 - 키예프 러시아의 문화와 제 2차 남슬라브 영향- 가 당대 러시아 문학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유형화되는 과정과 그 특색을 살펴보며, 나아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한편, 문화적 영향과 이식 관계를 소통현상으로 규정할 때,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소통의 ‘실패’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소통에서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신자가 원의미의 변화 없이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하므로, 원의미의 절대적 전달이 소통의 성공은 아닐 것이다. 소통의 성패여부를 가늠하는 데는 여러 평가기준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문화적 소통에서 일어나는 수용과 발전/창조의 메커니즘을 고려하는 동시에, 문화적 소통을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간의 번역 과정으로 이해한 로트만식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전달된 문화를 수신자 문화의 새 언어로 얼마나 창조적으로 번역되었는가를 그 잣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달된 문화가 수신자 측의 문화 속에 던져진 씨앗으로만 존재하여 새로운 토양의 자양분을 흡수한 완전한 개체로 생성되지 못했다면, 그리하여 새로운 문화 속에 기계적이고도 단편적인 파편으로 삼입된 채 머무른다면, 그것은 실패한 소통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14세기 말-15세기 러시아 문학의 이러한 소통상황에서 발생한 그 오류와 실패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 2. 전통의 설정

### 2.1.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

1230년대로부터 시작된 몽고-타타르의 침입으로 인해 14세기 초반에 이르러 이미 러시아는 문화/경제적인 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몽고-타타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서적보관서나 수도원의 필사고들이 불타고 사라짐으로써 막 절정에 이르려 했던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학적 번성은 사그라들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키예프 시대에도 매우 제한적이었던 글을 읽고 쓸 줄 알던 식자층이 알아졌으며, 당연히 필사나 문학 창작 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었다.<sup>6)</sup> 14세기 말 드리트리 돈스코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에 의해 주도된 쿨리코보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민족적 자신감을 되찾은 러시아인들은 즉각 필사작업을 부활시키며 문학 활동의 재기를 꾀했고, 이 과정에서 키예프 러시아의 번성한 과거는 그들에게 일종의 이정표로 제시되었다. 문학적 전통이 몽고의 침탈로 인해 사장된 이 시기의 러시아인들에게 비잔틴으로부터 문학 체계와 장르를 '이식'받아,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학 체계를 이루어내었던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이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sup>7)</sup>

한편, 11-13세기의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적 전통이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회고될 전통으로 자리 잡은 데에는 이러한 당대의 역사적인 정황들 외에도 두 시기의 러시아 사회에 만연했던 시대정신과 문학에 대한 당대의 요구의 유사성이 또 다른 이유로 기능하였다.

6) Л. А. Дмитриев(1980) "Литература первых лет монголо татарского ига. 1237 год - конец XIII века,"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 1, л., сс. 62-89.

7) Д. С. Лихачев(1952) "Возникновение оригинальных русских видов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Возникновение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Л., сс. 156-178. 키예프 러시아 시대에 이미 러시아의 고유한 문학이 발전하고 있었던 사례는 매우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 리하초프는 주로 러시아의 연대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연대기(летопись)는 역사/세속 문학 장르였던 비잔틴의 연대기(хроника)를 문학적 모델로 삼았으나 비잔틴의 연대기가 왕권 중심의 기록이었던 것과는 달리 편년체식 서술이다. 아울러 비잔틴의 연대기가 흥미로운 특정 사건의 줄거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면서 완결된 여러 이야기들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면, 러시아의 연대기에서는 개개 사건들이 완결성을 띄고 서술되지 않는 대신 언제나 유유한 역사적 흐름이 서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의 가장 주요한 주제는 ‘러시아 땅(Русская Земля)’에 대한 애정과 애국주의였다. 키예프 러시아의 전반기의 문학이 갖 기독교 국가의 대열에 동참한 러시아가 새로운 문화적 충격 속에서 자기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면, 후반기의 문학은 정치적 응집성이 비교적 약한 봉건제라는 정치체제가 서서히 와해되어가던 당대의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땅의 수호를 위하여 단결의 명분을 호소하는 정치적 팸플렛으로 기능하였다. 키예프 러시아가 키예프 대공의 자리를 쟁탈하기 위한 국지전으로 인해 약해진 틈을 타 주변 유목민-주로 폴로베츠인들(половцы)-의 변방 약탈이 드세어지고 몽고의 1차 침입이 시작되던 13세기 초반과 중반 이후에는 이러한 외세의 침탈에 대한 탄식과 러시아 땅의 수호를 촉구하는 강력한 현실참여적인 텍스트들이 창작되었다. 11-13세기의 이러한 양식(стиль)<sup>8)</sup>을 리하초프는 ‘기념비적 역사주의(монументальный историз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사물, 사건들과 개체들이 개별적이고 고유한 의미를 갖기보다는 거대한 역사적(총체적) 관점에서 인식됨으로써, 역사적/종교적 의미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이는 인간을 둘러싼 세계 전체를 역사적/종교적 견지에서 단순화하고 문학적 예술적인 기호로 변화시키는 세계 이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양식은 현실에서의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의 존재이유를 궁극적으로 러시아 땅, 아울러 그것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었던 기독교와 신의 섭리 속으로 귀속·환원시켰고, 이 시기의 문학은 ‘러시아 땅’을 중심주제로 한 강렬한 애국주의적이고도 역사주의적인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한편, 11-13세기의 키예프 러시아 문학의 기념비적 역사주의가 특히 ‘러시아 땅의 기독교적인 정체성 찾기’를 그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4세기 이후의 러시아 사회가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을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회고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였다. 극복될 수 없으리라 여겨졌

8) 리하초프가 사용하는 ‘시대 양식(стиль эпохи)’의 개념은 특정 시기의 문화 전반에 걸친 주도적인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현대문화를 규정할 때 사용하는 사조와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이 때 사조가 특정 시기를 지배하는 경향의 철학과 사상에 좀 더 중점을 둔 개념이라면, 양식은 물론 철학적 사상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는 하나, 사조보다는 그러한 경향의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도 구상적인 특성들에 중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Д. С. Лихачев(1973), с. 91.

9) Там же, с. 90-101. 기념비적 역사주의에 대해서는 Д. С. Лихачев(1970) *Человек в литературе Древней Руси*, М., сс. 25-62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져 있다.

던 몽고 지배의 속박 하에서 고통 받던 러시아인들에게 고통을 인내하고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자 납득 가능한 논리로 수용되었던 것이 기독교적 신의 섭리였으므로, 이들의 애국주의적 정서는 언제나 기독교적인 역사 해석으로 뒷받침되어 있었다.

키예프 러시아 문학이 14-15세기 러시아인들에게 그들의 문학적 전통으로 직접 회고되고 소통된 정황에 대한 이러한 분석은 실제 14-15세기의 고대 러시아 문학 텍스트에서 자주 인용된 키예프 러시아 문학의 텍스트, 그러한 키예프의 텍스트를 인용하여 창작된 14-15세기의 텍스트가 모두 민족주의적이고도 애국주의적 주제를 지닌 작품들이었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sup>10)</sup> 11-13세기 러시아 문학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뛰어난 형상이나 표현, 기법 나아가 글귀나 문단 전체가 14-15세기 러시아 문학작품들에서 그대로 차용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며, 이러한 인용과 차용의 경향이 14-15세기 러시아의 문학에서는 일종의 '양식'으로 발전되었다.

## 2.2 제 2차 남슬라브 영향 - 말염기 문체와 고양된 문학 양식

러시아의 제 2차 남슬라브 영향은 14세기 말-15세기 러시아 문화의 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문화적 소통의 관점에서 볼 때, 제 2차 남슬라브 영향 역시 당대 러시아에 전달된 일종의 전언이었으나, 리하초프의 이식문화론에 의하자면, 이러한 제 2차 남슬라브 영향 역시 당대 러시아적 요구가 동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다.

당시 러시아인들이 제 2차 남슬라브 영향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키예프 시대의 문화적 영광을 재현하고자했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즉 러시아인들에게 중세적 문자 문화로의 길을 연 키예프 러시아는 비잔틴과 주변 다른 슬라브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화 발전을 이루었던 만큼, 몽고 침입기 동안 단절된 키예프 러시아의 영광을 재생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바로 키예프 러시아가 걸었던 길 - 비잔틴과 다른 슬라브 문화와의 직접적 교류 - 을 반복하는 방법이 선택된 셈이다. 아울러, 그러한 길을 반복함으로써 몽고 침탈기를 통해 오염된 러시아의 문화를 최초의 순수한 상태로 복

10) Д. С. Лихачев(1962) *Культура Руси времени Андрея Рублева и Епифания Премудрого*, М.:Л., с. 89.



귀시킴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언어적 정화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점차 철학적 사상으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2차 남슬라브 영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주교였던 예브피미 트이르노프스키(Евфимий Тырновский)의 개혁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할 것인데, 개혁의 본질에 대한 그의 직접적인 저작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대신 그의 제자의 제자였던 콘스탄틴 코스텐체스키(Константин Костенчешский)가 남긴 글들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사상의 핵심은 문자, 언어의 표현과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밀접성에 있다. 이 때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구어가 아닌 문자로서, 문자는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상 그 자체의 본질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어떤 단어를 잘못 쓴다는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생각의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 실수였다. 특히 이는 신의 섭리를 기록하는 언어에 있어서는 절대 절명의 규칙이자 과제였다. 따라서 그는 정자법과 번역(주로 기독교 서적들의)상의 가능한 모든 부정확성을 없애는데 치중했고, 나아가 모든 철자들이 지닌 세세한 특징들을 통해 이를 설명하려 했다.<sup>11)</sup> 문자와 그것의 의미가 되는 현상 간에 존재하는 엄격성을 의미하는 예브피미의 개혁은 - 실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던 그리스어식 표기들을 부활한다거나, 남슬라브 지역들에서 사용되는 음운부호들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든지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친 것은 아니었으나 - 결국 언어-문화 전반에서 키예프 러시아 초기의 특징이었던 문화적 엄격성으로 되돌아가자는 흐름에 다름 아닌 셈이다.

이러한 언어-문학적 엄격성은 예브피미의 개혁 철학의 핵심이었던 말과 본질간의 완벽한 동일성의 추구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작가들의 언어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 즉 언어를 통해 현상의 본질을 반영해야만 한다는 당대 작가의 강박관념과 자기 글쓰기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낳았으며 성자의 성스러운 삶의 본질을 드러내어야했던 일련의 성자전 작가들에 의해 말쑤기 문체(плетение словес)로 탄생하게 된다. 즉, 칭송하고자 하는 성자의 성성에 바로 이르기 위해, 작가들은 모든 가능한 언어들에 동원해 이를 표현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경향들은 다소 장식적이고도 비생산적인, 동일한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적 변주가 중심이 되는 문학적 양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한편, 말이라는 표현 속에서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경향은 나아가, 개

11) Д. С. Лихачев(1973), сс. 117-118.

별적인 현상으로부터 추상화된 절대, 삶의 현상 속에서 종교적인 진실을 찾고자하는 경향으로 발전하였고, 이는 당대의 문학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추상주의라는 특성을 부여한다.

이 때 지적할 것은 이러한 추상주의적 특성은 이미 초기 키예프 러시아의 문학의 특징이기도 했으나, 14-15세기에 이르러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본래 성자의 성성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대단히 고양된 문체였던 말위기 문체, 초기 키예프 러시아 종교-전례적 숭고한 언어형식, 추상주의적 경향들은 당대에 민족의 내적 울분과 고양된 감정을 분출하는데 매우 적합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용장과 성자에 대한 찬가, 생애전이나, 현실에 대한 감정적인 울분을 토로할 수 있었던, 몽고의 침탈에 의해 피폐해진 러시아 땅에 대한 애도가나 승전가 등 군담류의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결과적으로 14세기 말-15세기 러시아에 내/외부로부터 전달된 두 문화 - '키예프 러시아 문학의 전통'과 '제 2차 남슬라브 영향'-는 당대의 필요성에 의해 전통을 대신해 의도적으로 설정되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서로 다른 경향을 지닌 이 두 문화는 결국 시대의 요구라는 한 지점에서 교차/통합함으로써, 당대 러시아 문화를 형성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3. 모방과 창작 사이: 소통의 오류<sup>12)</sup>

11-13세기 러시아의 작품들 중 가장 뚜렷하게 회고되어지고 인용된 작품들에는 신의 섭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민족으로 전파된 신약 이후의 시대를 은총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뒤늦게 개종한 러시아 땅의 성스러움과 은혜로움을 논리적으로 설파해낸, 11세기 키예프 대주교 일라리온의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Слово о законе и благодати)」나, 러시아 군주의 승전이나 패전, 러시아 땅의 멸망에 대한 사실적 서술을 통해 애국심과 단결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드러내는 군담류로 12세기의 「이고리 원정기(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13세기의 「러시아 땅의 패망에 관한 이야기(Слово о погибели русской земли)」,

12) 소통의 오류의 사례를 다룬 이 논문이 특정 시기의 문화적 소통에 대해 전반적인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13세기 말의 「알렉산드르 넵스키 생애전(Житие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과 13세기 말-14세기 초의 「바투에 의해 라잔이 패망한 이야기(Повесть о разорении Рязани Батыем)」<sup>13)</sup> 등이 있다.

특히 이들 키예프 시대의 애국주의적인 작품들은 1380년의 콜리코보 전투에서의 승리를 그린 작품들 속에서 주로 작품에 현란하고 다양한 형식적 기법으로서 화려함과 웅장함이라는 효과를 위해 차용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일라리온의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14세기 말의 예피파니 프레무드르이(Епифаний Премудрый)의 창작으로 여겨지는 「러시아의 황제, 드미트리 이바노비치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Слово о житии и преставлении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Ивановича, царя русского)」(이하,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으로 명명)에서 차용된다.<sup>14)</sup> 특히 이 작품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용

13) 이 문헌의 창작 연대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다. 심지어 리하초프는 자신의 논문 저작 연대에 따라 연대 추정을 약간씩 달리한다. 예를 들어, Д. С. Лихачев(1949) "«Повесть о разорении рязани Батыем»,» *Воинские повести Древней Руси*, М.;Л., сс. 139-140 에서 리하초프는 늦어도 14세기 중반 이전에 창작되었을 것이라 추정하는 가하면, 다른 논문 Д.С. Лихачев(1961) "Литературная судьба «Повести о разорении Рязани Батыем»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15в.,»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Л., 1986, с. 264에서는 13세기말에서 14세기 전반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한다. 그러나 리하초프 자신이 주편집자로서 편찬해냈던 일련의 고대 러시아 문학 전집물들에서 이 작품은 13세기의 작품으로 분류되어 소개되고 있다. (*Памятники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XIII в. ;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5, СПб., 1997.)

14) 이 작품이 씌어진 연대와 작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В. П. Адрианова-Перетц의 경우 1420년대 이후에 예피파니 프레무드르이를 모방한 작가에 의해 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В. П. Адрианова-Перетц(1947) "«Слова о житии и преставлении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Ивановича, царя русьскаго»,» *Труды отдел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 5, М.;Л., сс. 73-96), М. А. Салмина는 작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나 이 작품의 창작 연대를 1440년대로 추정한다.(М. А. Салмина(1970) "«Слова о житии и преставлении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Ивановича, царя русьскаго»,» *Труды отдел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 25, М.;Л., сс. 81-104)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예피파니 프레무드르이에 의해 14세기 말엽에 씌어졌을 것이라는 А. В. Соловьев의 가설을 받아들이고 있다.(А. В. Соловьев(1961) "Епифаний Премудрыйкак автор «Слова о житии и преставлении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Ивановича, царя русьскаго»,» *Труды отдел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 17, М.;Л., сс. 100-102.)

되기보다는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 형상 중의 하나가 변이되어 나타나고 있다.<sup>15)</sup>

Хвалит же гласом хваления Римская страна Петра и Павла, коими приведена к вере в Иисуса Христа, Сына Божия; восхваляют Асия, Ефес и Патмос Иоанна Богослова, Индия -Фому, (...) Все страны, грады и народы чтут и славят каждые своего учителя, коим научены православной вере. Восхвалим же и мы, (...) совершившего великие и чудные деяния учителя и наставника нашего,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земли нашей Владимира, внука древнего Игоря, сына же славного Свято-слава...

찬양의 목소리로써 로마 나라는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끈 베드로와 바벨을 칭송했다, 아시아, 예베소 그리고 파트모스가 보고슬롭 요안을 칭송하고, 인도는 도마를, (...) 모든 나라, 도시 그리고 민족 각각이 정교의 믿음으로 이끈 자신들의 스승을 찬양하고 기념한다. 우리들 또한 칭송했다, (...), 위대하고 기적적인 업적을 완수한 우리의 스승과 정신적 지도자들을, 우리 블라디미르 땅의 대공을, 태곳적 이고리의 손자, 영광스런 스바토슬라프의 아들을 ...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sup>16)</sup>

Восхваляет земля Римская Петра и Павла, Азия - Иоанна Богослова, Индийская же земля - Фому-апостола, (...) царя Константина -Греческая земля, Владимира - Киевская с окрестными городами, тебя же, великий князь Дмитриий, вся Русская земля.

로마 땅은 베드로와 바벨을 칭송하고, 아시아는 요안 보고슬롭을, 인도땅은 사도 도마를, (...) 그리스 땅은 콘스탄틴 황제를, 키예프 땅과 주변 도시들은 블라디미르를 찬양한다. 그대 드미트리 대공을 모든 러시아 땅이 칭송하도다.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sup>17)</sup>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에서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번창한 지역들의 이름이 열거된 다음, 이어서 비잔틴과 러시아가 언급되는 것은 전 세계의 전통적인 기독교도들과 나란히 신의 세계에 귀속된 러시아 땅의 영광됨을 드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아울러 각 세계를 신앙으로 이끈 사도들과 설법자들이 칭송되는데, 그 대열에 비잔틴의 콘스탄틴과 키예프 러시아의 블라

15) А. В. Соловьев(1961), сс. 100-102.

16)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1, СПб., 1997, с. 43.

17)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6, СПб., 2000, с. 227.

디미트리 대공이 나란히 언급되는 것은 당대 정교의 본산지인 비잔틴 땅에 비견되는, 러시아 땅의 성성聖省을 담보하는 러시아 군주의 신성성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대구와 유비를 이루는 이러한 서술방식은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적인 주제와 통일성을 이룬다.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에서는 이러한 형상화 - 구성으로 보아 「율법과 은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차용된 것이 명백한 - 가 비록 간략화되어 있으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구절은 생애전의 마지막에서 드미트리 돈스코이에 대한 송가 부분으로서 명백히 드미트리 돈스코이의 성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장식적으로 삽입된 부분이다. 그러나, 비잔틴의 콘스탄틴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 기독교를 설교한 인물들과의 유비는 주제론적 측면에서 다소 부자연스럽다.

그 외에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에는 키예프 러시아의 다른 문학 작품으로부터의 인용들도 발견할 수 있다.

"... Как же ты умер, жизнь моя бесценная, меня одинокой вдовой оставив! Почему я раньше я не умерла? Померк свет в очах моих! Куда ушел ты, сокровище жизни моей, почему не промолвишь ко мне, сердце мое, к жене своей? Цветок прекрасный, что так рано увядаешь? (...) вместе с тобою жила, вместе с тобою и умру ныне, (...) Зачем родилась и, родившись, прежде тебя почему не умерла, не видела бы тогда смерти твоей, а своей погибели! ..."

내 목숨처럼 더없이 소중한 당신이 어찌 나를 과부로 홀로 두고 가 버릴 수 있소? 왜 난 진즉에 죽지 않았을까? 눈앞이 캄캄해지는구나! 내 인생의 보배와 같은 당신은 어디로 가버렸소, 왜 당신은, 나의 심장과도 같은 당신은, 아내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오? 눈부신 꽃봉오리는 왜 그리도 일찍 시들어버리나? (...) 당신과 함께 살았고 이제 당신과 함께 죽으려오. (...) 왜 난 세상에 태어났으며, 태어났다면 왜 당신보다 일찍 죽지 않았을까, 당신의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죽음을 보았을 텐데!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sup>18)</sup>

О горе тебе, бедный человек! Как можешь описать кончину господина своего! Как не выпадут зеницы твои вместе со слезами! Как не вырвется сердце твое с корнем! Ибо отца оставить человек может, но доброго господина нельзя оставить; если бы можно было, то в гроб бы сошел с ним!

오, 너에게 이 슬픔이, 불쌍한 인간이여! 자신의 주인의 최후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어찌 너의 두 눈이 눈물과 함께 떨어지지 않을지! 어찌 너의

18)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6, СПб., 2000, с. 217.

심장이 뿌리부터 터져 버리지 않을지! 왜냐 할진대 인간은 아버지를 버릴 수는 있으나 선량한 주인은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관으로 그와 함께 떨어져 버릴 것이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생애전」)<sup>19)</sup>

“О милые мои братья и воинство! Как погибли, жизни мои дорогие? Меня единственного оставили в такой гибели! Почему я прежде вас не умер? И куда вы скрылись от очей моих? И куда отошли, сокровища жизни моей? Почему не промолвите мне, брату вашему, цветы прекрасные...! Зачем я не умер прежде вас, тогда не видел бы смерти вашей, а своей гибели?...”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여 내 군대여! 내 소중한 목숨과도 같은 이들이 어떻게 죽을 수가? 나만 혼자 이 파멸 속에 버려두었구나! 왜 나는 그대들보다 먼저 죽지 않았는지? 그대들은 내 눈에서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내 삶의 보배들이여 어디로 가버렸소? 눈부신 꽃들이여 왜 그대들의 형제인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요! 왜 나는 그대들보다 먼저 죽지 않았는지, 그랬다면, 그대들의 죽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파멸을 보았을 텐데?

(「바투에 의해 라잔이 패망한 이야기」)<sup>20)</sup>

클류첵스키(В. О. Ключевский)는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에서 다소 종교적이고 엄숙한 생애전 텍스트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추어 어색한, 드미트리 대공의 죽음에 대한 대공비의 애도(плач)가 「알렉산드르 넵스키 생애전」, 텍스트로부터의 차용이라 지적한다.<sup>21)</sup> 분명 클류첵스키가 지적한대로 애도는 그 현란한 비유와 생생한 정서적 표현 등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 대한 장중하고도 엄숙한 송가에 다름 아닌 일반적인 생애전 텍스트에서 대단히 이질적인 요소임이 명백하다. 실제로 11-13세기의 유명한 애도들은 「이고리 원정기」의 야로슬라브나의 애가를 비롯하여 대부분 군담류의 작품들에서 전사한 장수들에 대한 비탄을 표현하는, 근원상 민담으로부터 발생한 형식이다. 애도의 정서, 그리고 차라리 망자와 함께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모티브 등에서 드미트리 대공비의 애도는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애도와 일견 흡사한 듯도 보인다. 그러나 「알렉산드르 넵스키 생애전」에 대한 화자의 애도가 생애전의 일반적인 공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매우 조심스럽고 간

19)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5, СПб., 1997, с. 369.

20)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5, СПб., 1997, с. 153.

21) В. О. Ключевский(1871) Древнерусские жития святых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М., 1988, с. 171.

결하며 절제되어 있는 데 비해,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의 애도는 매우 서정적으로 비감하고 장황하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생애전」에 나타나는 화자의 탄식이 성자 알렉산드르 넵스키에 대한 생애전 작가, 전달자의 자기 위치와 역할에 충실한 탄식이라면,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의 애도는 생애전이라는 작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일탈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공비의 애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형상들을 드러내는 애도의 예를 13세기의 유명한 군담의 하나인 「바투에 의해 라잔이 패망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sup>22)</sup> 각각 여자와 남자의 애도로 그 서정적 주체는 다르나, 전체 애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상기 인용된 부분에서 충분히 드러나듯, 두 텍스트에서는 망자에 대한 비유들이 보배 -> 꽃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든가 망자의 죽음에 대한 탄식의 방식 - 망자의 침묵에 대한 탄식과 살아남은 자로서의 슬픔에 대한 표현 - 등이 전적으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정통 군담인 「바투에 의해 라잔이 패망한 이야기」에서 화려한 구전문학적 비유법으로 생생하게 표현된 애도가 바투에 의해 희생된 전사들에 대한 비감어린 화자의 탄식으로서 전체의 작품 구조에서 매우 적절한 것임에 반해,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에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안 드미트리가가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과 작별 인사를 고하고 평화롭게 예지적인 성자의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 이어지는 대공비의 극적이고 비감어린 애도, 그것의 과도한 감정 분출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드미트리 대공의 죽음에 대한 비탄을 표현함으로써 그의 존재를 드높이고자한 작가의 의도를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애도의 삽입은 결코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아울러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에 나타나는 애도가 서정성이나 표현성에 있어서 문학적으로 뛰어난 것도 불구하고 생애전 텍스트 속에 녹아들지 못하고 어색한 채 남겨진 이유는 그것이 기능과 에티켓이 중시되었던 고대 러시아의 문학의 특이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차별적 임의적 차용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14-15세기의 작가들이 11-13세기의 수려한 작품들로부터 뛰어난 형상이나 표현, 심지어는 문단 전체를 자신의 작품 텍스트에 끼워 넣은 예는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은 자신이 창작하는 텍스트가 지니는 기능적 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통 텍스트가 지니는 수려함의 근원 - 작품 전체와 차용 문단이 지니는 통일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미와

22) Д. С. Лихачев(1961), с. 274.

미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전통 텍스트들을 통해 자기 텍스트를 ‘장식’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이 때 당대의 작가들은 이러한 인용을 통해 원 전통 텍스트가 지닌 미적 가치를 자기 텍스트로 이전시킴으로써 자기 텍스트의 미적 완결성과 화려함을 얻는 대신, 오히려 어색하게 결합된 산만한 텍스트라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14세기 말-15세기의 러시아 문학에서 전통텍스트에 대한 탈장르적인 인용의 예는 수없이 많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주로 연대기의 1382년에 기록되어 있는 「토호타피쉬의 침략 이야기(Повесть о нашествии Тохтамышы)」에는 「바투에 의해 라잔이 패망한 이야기」에 사용된 표현들을 사용되고 있는데, 고양된 감정적 토로와 시적 서정성이 넘쳐나는 「바투에 의해 라잔이 패망한 이야기」의 텍스트가 다소 객관적이고 추상적이며 거시적인 연대기의 역사 서술 속에 융합되지 못하고 두드러진다.<sup>23)</sup>

И до той поры, прежде, была Москва для всех градом великим, градом чудным, градом многолюдным, (...) Плачет церковь о чадах церковных, а всего более об убитых, как мать, о детях плачущая. О чада церковные, о страстотерцы избитые, принявшие насильственную смерть, перенесшие двойную гибель - от огня и меча, от насилия поганых! Церкви стояли, утратившие великолепие и красоту! Где прежняя красота церковная? (...) не звона в колокола ...

그 이전까지, 모스크바는 모두에게 위대한 도시, 기적의 도시, 사람들이 들끓는 도시였다. (...) 교회는 살해된 아이들을 위해 우는 어미처럼 신앙심 깊은 기독교도들을 위해 애도한다. 오, 교회의 아이들이여, 강요된 죽음을 받아들인 수난자들이여, 불과 검으로, 이교도의 폭압으로 이중의 파멸을 견뎌 내는 이들이여! (...) 교회들은 그 위풍과 아름다움을 상실한 채 서 있도다! 예전의 아름답던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 (...) 종 치는 소리도 없고...

(「토호타피쉬의 침략 이야기」)<sup>24)</sup>

О сей град Рязань и земля Рязанская! Исчезла красота ее, и отошла слава ее, и нет в ней ничего доброго для взора - только дым и пепел. И церкви все сгорели, а великая церковь внутри выгорела и почернела. И не один только этот город пленен был, но и иные многие. Не было в городе ни пения церковного, ни звона колокольного : вместо радости все постоянно плакали.

23) Д. С. Лихачев(1979) *Поэтик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 1, Л., 1987, с. 467.

24)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6, СПб., 2000, с. 201.



오 이 도시 라잔, 라잔 땅이여! 그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그 영광도 사라졌다. 더 이상 눈길을 끌만한 것들은 남아 있지 않고 오직 연기와 재 뿐. 교회들은 모두 불타버려, 위대한 교회의 안은 불타 검게 그을렸다. 이 도시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도시들이 점령되었다. 도시에는 교회의 노래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기뻐하는 대신 모두가 울고 있다.

(「바투에 의해 라잔이 패망한 이야기」)<sup>25)</sup>

다소 시적 정서로 가득 찬, 토흐타미쉬에 의해 모스크바가 폐허가 되는 모습을 서술하는 작가의 애도는 사라진 도시와 교회의 위용에 대한 묘사, 폐허가 된 교회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있어서 「바투에 의해 라잔이 패망한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여, 그 인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적인 애도는 이어 「토흐타미쉬의 침략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연대기의 사실적 서술과 매우 상충된다. 작가는 모스크바 폐망에 대한 서술에 이어 실제적인 손실들을 마치 상인처럼 적나라하게 나열한다. (“타타르인들이 물러간 이후 며칠이 지나서 신실한 드미트리와 블라디미르는 부하들과 함께 자기 땅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죽은 자들의 시신을 장사지내도록 명했고, 40명의 시신에 대해서는 반 루블씩을, 80명에 대해서는 1 루블씩 주었다. 그리고 계산해보니, 망자를 장례 지내는데 모두 300루블이 들었다.(После того как татары ушли,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благоверный князь Дмитрий и Владимир, каждый со своими боярами старейшими, въехали в свою отчину(...)) И повелели они тела мертвых хоронить, и давали за сорок мертвецов по полтине, а за восемьдесят по рублю. И сосчитали, что всего дано было на погребение мертвых триста рублей....”)<sup>26)</sup> 즉, 연대기의 사실적 서술과 군담에서 드러나는 서정적 정서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다시 환기해야 할 것은 상이한 텍스트 간의 인용이 ‘러시아 땅’을 위한 애국주의라는 동일한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장르간의 역할이 명확했던 고대 러시아 문학에서 서로 다른 장르들 간의 미학적 차별성을 고려치 않은 텍스트 엮기는 매우 어색하고, 미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힘든 일종의 불협화음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리하초프는 이러한 적절치 못한 모방과 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뛰어난 특정 문학 모델에 대한 어색한 모방과 차용을 ‘양식화되지 못한 모방(неси-

25)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5, СПб., 1997, с. 151.

26)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6, СПб., 2000, с. 203.

лизационные подражания)',<sup>27)</sup> 다시 말해 완전하고 완결된 양식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된 서툰 모방으로 부른다. 이러한 텍스트간의 인용이 어색하게 된 데에는 비단 서로 다른 장르의 작품들 간의 인용 외에도 개개의 작품 속에 반영된 시대현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역시 개입되어 있다.

한편, 지금까지 언급된 서로 다른 장르들 간의 차용보다 14세기 말-15세기 문학에서는 애국주의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는 대표 장르인 군담 장르들 간의 인용이 더 두드러졌다. 서로 다른 장르들 간의 차용이 선택적이고 특정 모티브나 이미지, 기법만의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유사한 주제/형식적 구조를 가진 군담 장르 간의 인용은 작품의 전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14세기 말에 창작된 「자돈쉬나(Задонщина)」는 이런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다. 「자돈쉬나」에서 인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작품 중 대표적인 두 가지는 「바투에 의해 라잔이 패망한 이야기」와 「이고리 원정기」이지만,<sup>28)</sup> 그 형식적 인용의 유사성이 전면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더욱 더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이고리 원정기」와의 상관관계이다. 게다가 「이고리 원정기」의 진본텍스트가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러한 두 텍스트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은, 역설적으로, 창작시기를 초월한 미적 경지를 드러내는 「이고리 원정기」의 진본성을 부정하는, 즉 「이고리 원정기」가 「자돈쉬나」를 모방하여 18세기 경에 씌어졌다는 주장의 증거로 제시되어 왔다.<sup>29)</sup>

27) Д. С. Лихачев(1979), сс. 463-464.

28) 이들 텍스트들에 대한 연구들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Д.С. Лихачев(1978) "«Задонщина» и «Повесть о разорении Батыем»,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Л., 1986, с. 281-285; О. В. Творогов(1966)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и «Задонщина»,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и памятники Куликовского цикла*, М.:Л.; Д. С. Лихачев(1979), сс. 469-489. 등이 있다.

29) 오랜 논쟁인 만큼 참여한 학자들을 다 언급하기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몇몇 연구들을 소개하자면, 「이고리 원정기」의 위작설을 주장한 학자들로는 А. Мазон(А. Мазон(1940) *Le Slovo Igor'*, Paris)과 А. А. Зимин(А. А. Зимин(1967) "Спорные вопросы текстологии «Задонщины»,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No. 1, сс. 84-104) 등이 있으며, 「이고리 원정기」의 진본성을 주장한 학자들로는 Д. С. Лихачев(Д.С. Лихачев(1962) "Изучение «Слова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и вопрос о его подлинности»,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 памятник XII века : Сб. статей*, М.:Л.)와 Ю. М. Лотман(Ю. М. Лотман(1962)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и литературная традиция XVII- начала XIX в.»,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 памятник XII века : Сб. статей*, М.:Л.), R. Jakobson(R. Jakobson(1952) "The Puzzle of the Igor's Tale: On the

그러나 두 작품 간의 유사성에 대해 면밀히 논거된 리하초프의 논문 이후 사실상 「자돈쉬나」를 증거로 내세운 「이고리 원정기」의 18세기 창작설은 기세를 잃었는데, 리하초프의 그러한 논의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양식화되지 못한 어색한 모방’이다. 두 작품의 상호 유사성은 작품의 구성, 사건의 추이, 구체적인 구절, 비유나 형상 등의 모든 면들에 걸쳐져 있어, 얼핏 보기에도 두 작품은 심지어, 텍스트 비교의 측면에서 동일한 근원텍스트로부터 각각 창작된 텍스트로 여겨질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들간의 인용 관계를 드러내는 구체적 예로서 또다시 애도로 되돌아가보자.

Жены русские восплакались, приговаривая: Уже нам своих милых лад ни в мысли помыслить, ни думю сдумать ни очами не увидать, а золота и серебра и в руках не подержать!

러시아의 여인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읊소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런 남편을 마음 속에 그릴 수도 없고, 기억 속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으며, 금은 보화를 손에 짚 수도 없구나.”

Ярославна с утра плачет на стене города Путивля, причитая: О Днепр Словутич! Ты пробил каменные горы сквозь землю Половецкую. Ты лелеял на себе ладьи Святославовы до стана Кобякова. Возледей, господин, моего ладу ко мне, чтобы не слала я спозаданку к нему слез на море.

야로슬라브나는 이른 아침부터 도시 푸티블의 성벽에서 슬퍼하며 울었다: 오, 드네프르 슬로부터치여! 너는 돌산들을 헤쳐 폴로베츠 땅으로 흐르는구나. 너는 코바크의 진영까지 스바토슬라프의 배를 위무해주었구나. 내가 그에게 바다로 눈물을 실어 보내지 않도록 그를 내게로 흘려보내다오.

(「이고리 원정기」)<sup>30)</sup>

Запели птицы жалостные песни – запричитали все княгини и боярыни и все воеводские жены по убитым. Жена Микулы Васильевича Марья рано поутру плакала на забралах стен московских, так причитая: О Дон, Дон, быстрая река, прорыла ты каменные горы и течешь в землю Половецкую. Принеси на своих волнах моего господина Микулу Васильевича ко мне! И жена Тимофея Волуевича Федосья тоже плакала, так причитая: Вот уже веселие мое поникло в славном голодом Москве, и уже не увижу я своего государя Тимофея Волуевича живым!

새들이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에 모든 망자들의 대귀족 부인

150th Anniversary of its First Edition,” *Speculum*, vol. 27, n. 1, pp. 43-66) 등이 있다.

30)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4, СПб., 1997, с. 259, 261, 265.

들과, 장수들의 아내들이 읍소하였다. 미콜라 바실리에비치의 아내인 마리아 드미트리예바는 새벽부터 모스크바 강가의 성벽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하며 울었다. “돈강이여, 돈강이여, 빠른 강이여, 너는 돌산을 파헤치고, 폴로베츠 땅으로 흐르는구나, 내 주인 미콜라 바실리에비치를 내게 실어 보내다오.” 티모페이 볼루예비치의 아내인 페도시야는 이렇게 탄식하며 울었다. “여기 이미 나의 기쁨이 영광의 도시 모스크바에서 사라졌으나, 나는 더 이상 내 주인 티모페이 볼루예비치를 살아서 보지 못하리니.”

(「자돈쉬나」)<sup>31)</sup>

「이고리 원정기」에서 애도는 크게 무명의 집단화된 러시아 여인들의 애도와 야로슬라브나의 애도로 나뉜다. 이 때, 매우 서정적인 야로슬라브나의 애도는 러시아 여인들의 집단적인 애도 분위기를 배경으로 극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며, 이들의 애도는 비가풍 합창과 구슬픈 독주가 어울린 듯 장중한 애가의 형세를 이룬다. 야로슬라브나의 애도에서 형상화된 자연물들에 대한 호소는 이고리 원정기의 전반적인 구전문학적, 자연력 중심의 작품 구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반면, 「자돈쉬나」에 등장하는 애도는 자연에 대한 호소 등의 요소들에서 「이고리 원정기」의 야로슬라브나의 애도와 흡사하다. 야로슬라브나의 애도가 무명의 술한 러시아여인들의 비탄을 배경으로 하여 일종의 독주로 변주되며 그 미학적 절정에 다다른 것과 달리, 「자돈쉬나」의 애도는 야로슬라브나의 애도 속의 서정적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서정성을 다수의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장수 부인들의 입을 통해 흩어버림으로써 서정적 애가의 본연적인 미적 긴장감을 와해시키고 만다. 즉 이는 리하쵸프가 지적하듯, 몽고 침입기에 러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해가던 모스크바의 관료주의와 관등승상주의와 그 특징이었던 사무적인 정확성이 개입된 것일 것이다.<sup>32)</sup> 누구의 부인이 어떻게 애도했는지를 밝히는 사무적 서술은 모스크바 관료계 아내들의 애도에 대한 공식적 보고일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야로슬라브나의 애가의 모티브들이 갖는 미적 완결성은 사무적 확실성에 부딪혀 「자돈쉬나」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 앞선 분석에도 드러나듯, 동일한 모티브의 사용에 있어서 「자돈쉬나」가 「이고리 원정기」에 드러내는 미적 취약성들은 「자돈쉬나」가 「이고리 원정기」텍스트에 대해 2차 텍스트임을 드

31)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6, СПб., 2000, с. 113.

32) Д. С. Лихачев(1979), сс. 470-471.

러낸다. 다시 말해, 「자돈쉬나」는 키예프 러시아 시대의 문학 작품과 소통하고자 했던 14세기말-15세기 러시아에서 창작된 전형적인 기계적 모방, 혹은 양식화되지 못한 모방의 결과물인 셈이다.

#### 4. 결론

살펴본 것처럼, 시대적 요구에 의해 내/외적으로 전달된 두 문학적 전통이 반드시 당대에 있어 성공적인 문화 창조로 직결된 것만은 아니다.

실패한 소통의 예로서 지적된 앞선 일례들은 사실 14-15 세기 러시아에 팽배했을 빛나는 과거 전통으로서의 키예프 러시아에 대한 지향과 그 부활을 위한 당대의 요구가 얼마나 강렬했는가를 드러내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이나 「토흐타미쉬의 침략에 대한 이야기」, 「자돈쉬나」의 창작 방식이 다름 아닌 말염기라는 사실이다. 이는 일련의 연구들이 「드미트리 돈스코이 생애전」의 작가를 그 시기나 문체적 특성으로 미루어 예피파니 프레무드르이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sup>33)</sup>

말염기란 언어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짜듯 하는 창작방식이다. 단어와 단어를 엮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체로서의 말염기 양식을 확장시켜보자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이어 짜는 창작 방식과 연관시킬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인간의 상상력을 이용한 자기 창작을 극도로 경계하였던 고대 러시아 문학의 종교 문학은 기실 그 발생의 첫 시기부터 자기 말을 배제한 채 여러 정전 텍스트들로부터 이용된 텍스트들을 엮어 짜는 창작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14세기 말-15세기에 문학 창작의 기법이자 양식으로 널리 발전한 말염기 문체의 러시아적 원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부흥기 러시아의 ‘전통의 설정’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였듯, 제 2차 남슬라브 영향을 받아 당대 문학의 특징적 문체로서 자리 잡은 말염기 문체는 원래 올바른 형상을 창출하고 분위기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렇게 볼 때, 부흥기 러시아 문학에서의 말염기 문체는 첫째, 당대 러시아 문학의 주제가 민족의 억눌린 의식과 분노, 아울러 자긍심을 표출하는 것이었던 만큼 요

33) Соловьев, А. В.(1961), сс. 90-95를 참조.

구되는 분위기를 창출하는 데 적합한 것이었고, 둘째, 당대 문인들에게 강력한 애국주의적인 파토스로 매우 매력적이었던 키예프 문학 전통으로부터 텍스트를 차용하는 데 있어 작가들의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창작 방식이었던 셈이다.

또한, 전통적인 교회 문학에서 교회작가들이 자신의 인간적 창작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도로 엄격하지만, 창조적인 텍스트 쓰기 작법을 구사했던 것을 떠올려본다면, 과거의 문학 작품에 대한 이러한 차용, 심지어 화학적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지 않은 기계적인 차용마저도 어찌면, 당대 작가들에게 일종의 문학적 전통에 대한 강박관념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14세기 말-15세기 러시아에 팽배했던 문학적 전통에 대한 모방과 기억, 재생 의지는 16세기에 이르러 중앙집권정체의 모습을 갖춰가던 모스크바 공국이 정치/문화/종교상의 체제 정비와 더불어 국체의 존엄성을 위한 관료주의적 공식성을 문화의 지표로 삼으면서 변질된다. 즉 고양된 민족 심리의 분출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중앙정부의 권위와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략되어버린 웅장한 이 시기 러시아의 문학적 형식들은 이미 문화적 과거의 재생과 부흥이라는 본래 의도와는 다른 새로운 결과, 다시 말해 형식적 문학 양식인 장식주의로 귀결되어 변화하였다.

## 참고문헌

-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1. СПб., 1997.
-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4. СПб., 1997.
-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5. СПб., 1997.
- Библиотека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т. 6. СПб., 2000.
- Памятники литературы Древней Руси, XIII в.*, М.;Л., 1982.
- Адрианова-Перетц, В. П.(1947) "Слова о житии и преставлении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Ивановича, царя русьскаго," *Труды отдел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 5. М.;Л.
- Дмитриев, Л. А.(1980) "Литература первых лет монголо-татарского ига 1237 год - конец XIII века," *Истор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 1. Л.
- Ключевский, В. О.(1871) *Древнерусские жития святых как исторический источник*, М. (переиздание - 1988)
- Лихачев, Д. С.(1949) "«Повесть о разорении рязани Батыем»," *Воинские повести Древней Руси*, М.;Л.
- \_\_\_\_\_ (1952) "Возникновение оригинальных русских видов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Возникновение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Л.
- \_\_\_\_\_ (1961) "Литературная судьба «Повести о разорении Рязани Батыем» в первой четверти XV в.,"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Л. (переиздание - 1986)
- \_\_\_\_\_ (1962) *Культура Руси времени Андрея Рублева и Епифания Премудрого*, М.;Л.
- \_\_\_\_\_ (1970) *Человек в литературе Древней Руси*, М.
- \_\_\_\_\_ (1973) *Развитие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X-XVII веков.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 1, Л. (переиздание - 1987)
- \_\_\_\_\_ (1978) "«Задонщина» и «Повесть о разорении Батыем»,"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Л. (переиздание - 1986)
- \_\_\_\_\_ (1979) *Поэтик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збранные работы в трех томах*, т. 1, Л. (переиздание - 1987)

- Лотман, Ю. М.(1992a) "Проблема византийского влияния на русскую культуру в типологическом освещении,"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 1, Таллинн.
- \_\_\_\_\_ (1992b) "О двух моделях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системе культуры," *Избранные статьи*, т. 1, Таллинн.
- Салмина, М. А.(1970) "«Слова о житии и преставлении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Ивановича, царя русьскаго»,» *Труды отдел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 25, М.;Л.
- Соловьев, А. В.(1961) "Епифаний Премудрыйкак автор «Слова о житии и преставлении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Ивановича, царя русьскаго»,» *Труды отдела а древне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 17. М.;Л.
- Творогов, О. В.(1966)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и «Задонщина»,» *Слово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и памятники Куликовского цикла*, М.;Л.



## Резюме

**Подражания Киев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традиции  
во время Предвозрождения Древней Руси**

Со, Сон-Джонг

В настоящей статье совершается конкретный анализ разнообразных аспектов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поприще во время 'Предвозрождения', рассмотрив изучаемое нами литературное явление как результат "автокоммуникации" культуры, в частности литературы раннего этапа новой Руси под влиянием Москвы с литературой прошлой Киевской Руси. После монументальной победы московских князей над татарами на Куликовской битве в 1380 г., стремление к утверждению народного осознания находилось на резком подъеме. Чтобы возвратить былую славу, книжники XIV-XV вв. московского княжества обратились к богатейшему литературному наследию Киевской Руси. И это течение мы понимаем как выражение желания или попытки коммуникации с другой культурой,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точнее, автокоммуникации.

При этом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в виду, так называемое, 'второе южнославянское влияние.' В XIV-XV вв. Московская Русь с большой охотой принимали византийскую культуру через Болгарию. В то время на Руси это считались весьма нормально, так как прежде всего надо восстановить культурную связь Руси с Византией, разорванную Монголо-татарским игом и тем самым, русские княжники думали, что теперь они вновь доступны к руслу процветания культуры Киевской Руси. В ходе такого массового введения из Константинополя переводились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греческие оригиналь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и в житийной литературе заметно распространился такой прием, как 'плетение словес'. Указанный нами прием, 'плетение словес', перерастая за рамки того или одн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риторического приема, отражал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тепени отвлеченность и повышенного народного чувства. В своем происхождении 'плетение словес'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литературный метод для 'адекватного' выражения повышенной

эмоциональности. Более того, этот прием грамотно соответствовал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цели религиозно-литургической формы языка Киевской Руси.

Впрочем, мы наблюдаем целый ряд 'нестилизованного подражания' литературному творчеству Киевской Руси московскими авторами. Это является литературные соотношения «Слова о житии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Ивановича» с «Повестью о житии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Повести о нашествии Тохтамыш» с «Повестью о разорении Рязани Батыем» и т.д. С нашей точки зрения поднятый 'шум' при коммуникации между этими текстам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результат ошибки коммуникации, т.е. 'нестилизованного подражания'.

Другой примечательный пример мы еще находим в круге литератур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Московского княжества. Про соотношение «Задонщины» со знаменитым «Словом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немного забегаая вперед, можно заключить как типичного 'механического подражания', господствовавшего в XV веке,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было велико желание 'собеседовать' с эпохой Киевской Руси. В отличие от «Слова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в «Задонщине» неорганически соединяются разнородные, различающие друг от друга, стили, т.е. фольклорный стиль, стиль по «Слову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деловой стиль и т.д. и это калейдоскопическое сосуществование разных стилей отнюдь не достигает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ршенства, воплощенного в «Слове о полку Игореве».

Таким образом, хотя неудачно, но продолжительный ряд попытки коммуникации авторов XIV-XV вв. имеет значение некоего индекса желания современников, что стремиться и возратить, восстановить прошлую святую память, максимально и нагляднейшим образом отраженную в культурном наследии Киевской Руси, до монголо-татарского ига. Однако,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к XVI веку эта справедливая дань прошедшей славе превращалась в 'орнаментализм', или просто формально стилизованный прием.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06. 3. 15
논문심사일:	2006. 3. 25 ~ 2006. 4. 16
심사완료일:	2006. 4. 20